생생한 지역미술의 현장을 담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시대를 품다, 광주현대미술' 펴내
25일 김냇과 갤러리카페서 책담회

'제3회 오월전' 중 광미공창작단이 제작한 '오월의 전사' (1991·망월동 오월묘역)

지역 미술현장에 가면 어김없이 그가 있다. 대규모 미술행사는 물론이고, 일가를 이룬 원로들의 전시부터 청년 작가의 전시장까지 그의 발길은 이어진다. 특히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의 작업 현장에서 그를 만나면 왠지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출발선에 선 이들의 작업을 꼼꼼히 기록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는 건 아마도 청년 작가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생생한 지역미술 현장 기록서이자 지역 미술문화 자산에 대한 단상을 담은 '시대를 품다, 광주현대미술'을 펴냈다. '남도미술의 숨결', '광주현대미술의 현장'에 이어 10년만에 펴낸 책이다

조 대표는 자신을 "찾아다니고 정리하고 매개 공유하는 사람"이라 칭한다. 또 작가의 예술세계나 연구자의 저술은 개별활동이면서 또한 시대와 사회를 투영하는 공공 문화자산이기에 함께 나누고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9년 광주미술연구소(www.gwangjuart.com)를 설립, 동료들과 광주 미술과 지역 작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책에는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저자의 주요 연구논문과 학술행사 원고, 강의 자료, 기고 글 가운데 16편을 실었다. 책의 출판은 꾸준히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엮어내는 데 힘써온 '상상창작소 봄' 김정현 대표의 기획으로 성사됐다. 두 사람 모두 "지역의 역사와 시대현실과 사회문화를 품고 있는 미술문화자산을 앞뒤 맥락을 찾아 엮어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인호 대표

책은 '남도가 가꾸어 온 지역 미술문화 자산', '시대현실과 함께 하는 미술', '변화를 열어가는 우리 시대 미술'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직접 발로 뛰며 작성한 글들이기에 다양한 현장 사진이 생동감을 더한다.

1장에서는 조선시대 학포 양팽손과 공재 윤두서, 근현대기를 잇는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과 이후 호남 한국화단의 현대적 변모와 다원화, 남도 서양화단에서 구상화맥 등을 다뤘다. 오지호·허백련·양수아 등의 삶은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통해 되짚어 보고 조방원 등 남도 한국화단도 들여다봤다.

2장은 민중미술 등 시대 현실과 접속한 미술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예술의 근간 중 하나인 '오월전'으로 본 시대정신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전시, 대인예술시장 일상 속 미술문화 등을 다룬다. 3장은 호남 서양화단에서 추상미술 태동, 광주비엔날레와 도시문화의 변화, 광주 미디어아트, 뉴-밀레니엄시대 광주미술의 역동과 실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조인호 대표는 "창작자들의 활동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동시에 문화자산"이라며 "개별 세계가 아닌 공공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는 데 이 책이 소소한 미풍이라도 일으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책 출간을 기념해 지역 미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도 마련된다. 오는 25일 오후 4시 김냇과 갤러리 카페에서 열리는 책담회는 문희영 예술공간 집 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인호 대표와 상상창작소 봄 김정현 대표가 함께한다.

문의 010-7605-61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 연극 '짬뽕', 세종솔로이스츠 공연

전남문화재단, 기획공연…다음달부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연극 '짬뽕'

연극, 클래식, 국악.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올 한해 다양한 기획공연을 진행한다. 장소는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이다.

5월에는 모두 3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한국 현대사에서 잊어서는 안될 5·18 광주민중항쟁 43주기를 맞아 준비한 작품들이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공연은 '극단 산'의 레퍼토리 작품 '짬뽕'이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배경으로 5·18 계엄 상황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벌어졌다고 믿는 중국집 식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다.

이어 민중화가 홍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을 모티브로 한 노래극 '오월'을 무대에 올리며 전남도립국악단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제작한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7월에는 세상만사 이야기를 흥겨운 연희와 재미난 뒷담화로 유쾌하게 풀어낸 '연희집단 The광대'의 창작연희극 '당골포차'를 공연한다.

8월에는 '남도어린이페스타'가 기다리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대상 공연을 한달 동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격주로 8회 공연할 예정이다. 2004년 극단 '학전'이 선보이기 시작한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는 9월에 관객들을 만난다. 배려심 많은 민호와 말괄량이 슬기 남매가 새로 이사온 동네 놀이터에서 장난꾸러기 뭉치를 만나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0월에 무대에 서는 '암카날'은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된 듀오로 첼로와 가야금이라는 이질적인 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하모니를 선보인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 모던 록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들려준다.

11월에는 세계적인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를 만난다. 레퍼토리는 프랑스의 천재시인 랭보의 산문시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브리튼의 음악이 만난 '일뤼미나시옹'이다.

관람 신청은 공연 2주전부터 남도소리울림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암 카날'과 '일뤼미나시옹'을 제외한 모든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연계 작가와의 대화

26일, 김덕희·안준영 작가
최승현·최재혁 큐레이터 참여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2023 : 위상의 변조' 전에서 만나는 김덕희 작가의 작품.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23 : 위상의 변조'전(7월16일까지 하정웅미술관)과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덕희·안준영·유지원·강원제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에는 김덕희·안준영 작가와 두 사람의 평론 글을 작성한 최승현, 최재혁 큐레이터가 참여한다. 오는 6월 7일 오후 3시에 유지원, 강원제 작가가 참여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물질과 에너지, 밤과 낮, 혼돈과 질서의 순환을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중인 김덕희 작가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손 형태의 조각작품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불안감, 그로 인한 신경증, 불면증 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안준영 작가는 다양한 세밀화로 표현한 불안정한 세계를 제시, 눈길을 끈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매니저, 부산비엔날레 전시팀장 등을 지낸 최승현 미술평론가는 독립큐레이터로 활동중이다. 최재혁 큐레이터는 사비나미술관과 소마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독립기획자로 '생태, 인류, 담양'(2023) 등을 기획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성호 작가가 이야기하는 '생태감수성의 세계'

광주문화재단, 두번째 인문학 강좌…27~28일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생태작가인 김성호〈사진〉씨는 '생명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과학자'로 불린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다가섬'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무언가에 특히 자연에 깃들인 생명에 다가서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본다.

김성호 작가로부터 생태 감수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 두번째 인문학 강좌로 김성호 작가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진행한다. 장소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이며 주제는'생태감수성의 세계'.

먼저 27일은'자연에 깃들인 생명에 다가서는 삶'을 주제로 김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낱말인 '다가섬'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주변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8일은 '자연에 깃들인 생명에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모티브로 그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진정으로 그 누군가가 되는 '눈높이 맞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 작가는 수백 년 수천 년 한자리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낸 나무 등을 소재로 생태 감수성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김 작가는 27년 근무한 대학을 퇴직한 뒤로는 자연에 깃들인 생명에 다가서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는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를 비롯해 '동고비와 함께한 80일', '까막딱따구리 숲', '나의 생명수업' 이 있다.

김 작가는 "숲 바닥에 낮게 앉아있는 버섯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숲 바닥에 버섯처럼 엎드리는 순간을 통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며 "다가섬을 통해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호재 작가 40년 화업 갈무리전

24일~6월4일 김냇과 갤러리

'Rumination-22004'

나주 출신 서양화가 신호재 작가가 환갑을 맞아 40년 작품 세계를 갈무리하는 전시회를 연다.

신 작가는 'Rumination-6040'을 주제로 24일부터 6월4일까지 김냇과 갤러리(본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프리오픈 24일 오후 3시~6시.

이번 전시는 대학 1학년 때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40점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기획으로 신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가늠해 볼 수있는 기회다.

신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필휘지로 기호화, 단순화한 현재의 작품들과 함께 대학 시절 즐겨 그렸던 인물화 구상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오래된 작품은 1983년 전남대 재학시절 그렸던 첫 추상작품 '하늘아래'다.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시된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구상으로 단순화한 지금의 화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작가의 40년 작품의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연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한 재현 대신 달과 산, 강, 구름, 나무, 매화 등을 자신의 개성이 담긴 기호로 재해석해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작품에서는 자유로운 붓질이 눈에 띈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화면과 강하고 대범한 붓질의 흔적,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조형요소로 삼고 있어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매, 난, 국, 죽 사군자를 치는 듯한 호흡이 느껴지고 오방색 원색의 붓질은 활달한 기운을 전한다.

빨강, 파랑, 노랑 등 작가의 호흡을 담아내는 화려한 원색은 작품에 화사함을 부여하며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리듬감과 율동감이 어우러져 다양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신 작가는 전남대 서양화과와 조선대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31회의 초대 및 개인전과 50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미술 에뽀끄, 한국미협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슬로건 공모전…5월 16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오는 5월 16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재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긍정적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이내 문구,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친근하고 간결한 슬로건이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16일까지 이메일(jyj268@gjw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1차 내부 심사, 2차 시민 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해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 참여 40명(5천원 상당 포상품)을 시상한다. 공모 결과는 6월 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슬로건은 재단 홍보물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062-670-0563.

/김미은 기자 mekim@